

## 대졸자 창업 실태와 창업 관련 영향 요인 탐색적 분석

천영민\* · 박가열\*\*

### ● 요약 ●

본 연구는 최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학 졸업자의 창업 실태를 파악하고, 창업 여부,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 및 창업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2016년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분석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하였다.

대졸자 창업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대졸자의 졸업 대비 취업 및 창업 현황, 인구통계에 따른 특성별 창업 현황, 연도별 창업형태, 창업 형태별 창업비용 평균차이, 특성에 따른 창업 시 어려움 정도, 창업관련 정책 인지 및 참여 수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졸자가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창업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고, 창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소요된 비용 마련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와 창업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졸자 창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논의를 맺었다.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zzari90@keis.or.kr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kypark@keis.or.kr

## I 서론

정부의 예산 확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을 통한 전통적인 사회로의 이행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 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 수준이긴 하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고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실업자에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이처럼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취업 중심의 단선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2012년에서 2014년간 평균 취업자 수 증가의 89.6%가 1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이내의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가 창업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스타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R&D, 투자 등 일관되게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기술기반 창업뿐만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소셜벤처 창업도 활성화하며, 셋째, 세금 등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마을 조성 등을 통해 자율적 교류·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은 시작일 뿐, 사업체를 정상 궤도에 올리고 기업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창업 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받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창업은 기존에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세력의 저항을 뚫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고난과 개척의 길이다. 최근 발표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 5년 생존율은 27.5%인 것으로 나타났고, 30대 미만 대표자 기업의 소멸률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청년 창업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적자생존의 치열한 생존 투쟁임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7).

이처럼 청년 창업의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져 재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며 재기펀드를 조성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경험에 기초해 청년 창업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남아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좀 더 실효성 있게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년 창업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걸림돌이 어디에 있는 지를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졸자의 창업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창업을 하게 된 이유, 창업에 소요된 비용, 창업 만족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II 선행연구

대졸자의 창업 실태와 창업 관련 영향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청년 창업의 실태와 창업 인식, 그리고 창업 성공 요인 및 창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 문헌들을 간추려 주요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청년 창업의 실태 및 인식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들도 증대하고 있으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청년 창업 사례는 드물며, 대학생의 창업 관련 태도에 관한 학문적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원준, 2016). 청년들이 창업하는 이유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패기를 무기로 기업이 정신을 실현하려는 창업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뚜렷한 목적이 없이, 취업난을 피하기 위한 현실 도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통하여 취업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교육정책 역시 존재한다(노규성, 강현직, 2012).

최근 들어 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 신용 불량자 및 사회적 패배자로의 낙인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물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기업이 정신을 보유한 청년 인재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을 중요한 경력 경로(career path)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창업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 & Kim, 2013).

한편, 창업의 성공을 측정하는 요인들은 다양한데, 매출액이나 연평균 순수익, 고용성장률, 종업원 대비 매출액이나 동종업체 대비 매출액과 같은 계량적 성공 요인과 목표한 기대 수준을 달성한 정도, 생존확률,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종업원의 만족도 등과 같은 주관적 성공 요인으로 구분된다(이재훈, 2014). 창업의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자의 특성을 꼽을 수 있는데, 연령, 교육 수준, 경력, 창업이전의 경영경험, 가족배경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Bollinger 등, 1983; Bowen & Hisrich, 1986).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에 대한 두려움, 지식 및 경험의 부족,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업에 도전하기 어려워하므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창업문화 확산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제공함으로

써 지식 및 경험을 쌓게 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재훈, 2014). 또한, 청년들의 긍정적 창업 인식에 관련된 성격특성인 개방성과 친화성과 셀프리더십 전략을 활용하여 창업교육과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을 선발 및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정대용, 채연희, 2015). 성격특성과 인지전략들과 함께 창업교육이나 창업프로그램의 체험이 자신이 창업을 성공시킬 자신감, 즉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줄 때 더욱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정부주도만으로는 선순환 창업생태계의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간 신뢰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박재화, 박명수, 김대엽, 2012). 첫째,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가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고, 둘째, 창업 준비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성공모델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창업경영이 지속되어 창업생태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창업취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넷째, 창업성공과 실패경험의 사회적자산화와 더불어 창업지원에서 투자까지 가능한 통합창업서비스기관을 육성하고 공정한 창업거래와 정책지원에 따른 성과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창업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청년 창업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창업 본연의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정교한 설계와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기초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자료이다. GOMS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6년에 처음 실시한 조사로서, 최초 기획단계에서는 약 8년 이상의 웨이브를 추적하는 장기추적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2회까지만 추적하는 단기패널조사 형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조사설계가 횡단면조사로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다(신종각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졸업자부터 2015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분석 대상수는 108,925명인데, 권역별로는 경상권과 경기권이 각각 25.2%와 25.0%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유형은 4년제가 68.3%로 전체 대비 약 2/3 정도이었다. 전공계열은 공학계열과 사회계열이 각각 26.4%와

23.3%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52.6%로 여성에 비해 약간 많았고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65.6%로 가장 많았다.

〈표 1〉 분석대상 기초통계분석결과

(단위 : 명, %)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졸업년도	2010	18,078	16.6	전공계열	인문	11,461	10.5
	2011	18,299	16.8		사회	25,405	23.3
	2012	18,250	16.8		교육	8,481	7.8
	2013	18,160	16.7		공학	28,759	26.4
	2014	18,056	16.6		자연	14,085	12.9
	2015	18,082	16.6		의약	7,283	6.7
권역	서울권	22,967	21.1	예체능	예체능	13,451	12.3
	경기권	27,210	25.0	성별	남자	57,283	52.6
	충청권	17,606	16.2		여자	51,642	47.4
	경상권	27,412	25.2	설립유형	국립	21,345	19.6
	전라권	13,730	12.6		공립	15,922	14.6
학교유형	전문대	32,118	29.5		사립	71,476	65.6
	4년제	74,444	68.3		기타	182	.2
	교육대	2,363	2.2	합계		108,925	100.0

자료: 2010-2015GOMS

각 연도별 졸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이후 약 18개월 경과 시점에서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와 창업을 한 일자리인지를 확인하였다. 취업 비율은 2010년에 79.7%로 가장 높았다가 2013년까지 하락하였으며,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최근 청년 취업난 심화와 맞물려 취업 비율이 낮아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창업 비율은 졸업 인원 대비 3~4% 내외, 취업 인원 대비 4~5% 내외 수준인데, 추세상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창업 역시 약간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연도별 대졸자의 졸업 대비 취업 및 창업 현황

(단위 :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졸업 인원	18,078	18,299	18,250	18,160	18,056	18,082	108,925
취업 인원	14,407	14,489	13,737	13,300	13,371	13,168	82,472
졸업 대비	79.7%	79.2%	75.3%	73.2%	74.1%	72.8%	75.7%
창업 인원	671	712	608	559	595	539	3,684
졸업 대비	3.7%	3.9%	3.3%	3.1%	3.3%	3.0%	3.4%
취업 대비	4.7%	4.9%	4.4%	4.2%	4.4%	4.1%	4.5%

자료: 2010-2015GOMS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 108,925명 중에서 약 3.4%(총 3,684명)에 해당하는 창업자에 대해 주요 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이다. 권역별로는 경상권 대학을 졸업한 창업자가 25.5%로 가장 많지만 전라권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 중 창업 비중이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를 졸업하고 창업한 대졸자가 2,315명으로 전문대 졸업 창업자 1,363명에 비해 거의 천명 가까운 수가 많지만 학교유형 대비 창업자 비중은 전문대가 4.2%로 4년제 3.1%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창업자가 가장 많은 전공은 예체능계열로 1,127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 928명, 공학계열 574명 순이었다. 특히 예체능계열은 창업자 수도 많지만 전공 대비 창업 비중도 8.4%로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창업 대비 남성 비중이 56.9%로 여성(43.1%)에 비해 13.8%p 높았는데, 남성 졸업자 대비 창업 비중이 3.7%로 여성 졸업자 대비 창업자 비중 3.1% 보다 높았다.

<표 3> 주요 특성별 창업 현황

(단위 : 명, %)

	권역					학교유형			전체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전문대	4년제	교육대	
인원	697	908	473	938	668	인원	1,363	2,315	3,684
창업대비	18.9%	24.6%	12.8%	25.5%	18.1%	창업대비	37.0%	62.8%	100%
권역대비	3.0%	3.3%	2.7%	3.4%	4.9%	유형대비	4.2%	3.1%	3.4%
	전공계열							성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남자	여자
인원	336	928	168	574	455	96	1,127	인원	2,098
창업대비	9.1%	25.2%	4.6%	15.6%	12.4%	2.6%	30.6%	창업대비	56.9%
전공대비	2.9%	3.7%	2.0%	2.0%	3.2%	1.3%	8.4%	성별대비	43.1%
									3.1%

자료: 2010-2015GOMS

대졸자의 졸업 이후 창업 형태를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 <표 4>이다. 가장 많은 창업 형태는 혼자 창업한 것인데, 창업자 중에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을 거의 매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1년에 5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가 이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창업 형태는 사업자 등록 없이 과외 또는 레슨 등을 혼자 실시하는 형태가 많은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형태는 주로 예체능계열을 졸업한 대졸자가 많이 하는 형태인데, 최근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연도별 대졸자의 창업 형태

(단위 :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혼자 창업	384 57.2%	413 58.0%	340 55.9%	293 52.4%	297 49.9%	272 50.5%	1999 54.3%
동업자와 함께 창업	73 10.9%	77 10.8%	47 7.7%	60 10.7%	54 9.1%	56 10.4%	367 10.0%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인수	27 4.0%	24 3.4%	22 3.6%	22 3.9%	13 2.2%	22 4.1%	130 3.5%
기존 사업에 동업 참여(일정지분보유형태)	2 .3%	6 .8%	9 1.5%	9 1.6%	7 1.2%	9 1.7%	42 1.1%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음	39 5.8%	46 6.5%	50 8.2%	36 6.4%	46 7.7%	29 5.4%	246 6.7%
사업자 등록 없이 혼자 일함(과외, 레슨 등)	143 21.3%	144 20.2%	138 22.7%	137 24.5%	174 29.2%	145 26.9%	881 23.9%
기타	3 .4%	2 .3%	2 .3%	2 .4%	4 .7%	6 1.1%	19 .5%
전체	671	712	608	559	595	539	3684

자료: 2010-2015GOMS

창업 형태에 따라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것이 〈표 5〉이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창업 형태별 창업비용 평균차이

(단위 : 명, %,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혼자 창업	1115	5577.69	9951.308	298.018	0	160,000
동업자와 함께 창업	295	6173.48	15892.299	925.285	0	200,000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인수	75	7486.51	9043.025	1044.199	0	50,000
기존 사업에 동업으로 참여 (일정지분보유형태)	30	3766.67	9321.632	1701.889	0	50,000
기타	15	4733.33	9041.070	2334.394	0	30,200
합계	1530	5742.35	11285.383	288.516	0	200,000
$F = 0.874, \quad Sig = 0.479$						

자료: 2010-2015GOMS

창업을 할 때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매우 어려운 경우에 '1', 매우 쉬운 경우에 '5'를 갖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각 문항에 대해 주요 특성별로 평균 차이를 비교

하였는데, 가장 어렵다고 느낀 것은 자금 확보로 2.54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사업장 위치 선정 2.98점, 정보 수집 2.99점 이었다. 반면에 업종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정도는 3.41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정보 수집을 제외하고는 남성들이 좀 더 어렵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교 유형별로는 4년제의 경우에 인력 확보, 전문대의 경우에 업종 선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이 자금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었고, 자연계열과 사회계열은 인력확보에, 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은 업종 선정에, 의약계열은 행정절차와 사업장 위치선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권과 경기권의 경우에 자금 확보와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할 때 도움 정도를 나타낸 것은 <표 7>이다. 일자리 경험이 4.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공지식이 3.45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대체적으로 높았고, 학교 유형별로는 전공지식과 일자리경험은 4년제가,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 경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민간창업컨설팅은 전문대가 높았다.

<표 6> 창업시 어려움 정도

(단위 : 점, 명)

		자금 확보	기술 확보	인력 확보	행정 절차	업종 선정	사업장 위치선정	정보 수집
남자	평균	2.47	3.08	2.97	3.03	3.35	2.94	2.99
n=1,082	표준편차	1.021	.982	1.050	.970	1.005	1.111	1.003
여자	평균	2.67	3.28	3.14	3.20	3.53	3.07	2.97
n=529	표준편차	1.046	.918	1.031	1.003	.981	1.079	.992
전문대	평균	2.55	3.11	3.10	3.08	3.32	3.03	3.01
n=406	표준편차	1.052	.979	1.033	.987	1.026	1.136	1.015
4년제	평균	2.53	3.16	3.00	3.09	3.44	2.96	2.98
n=1,205	표준편차	1.027	.961	1.050	.983	.990	1.090	.994
인문	평균	2.69	3.20	3.02	3.21	3.46	3.01	3.05
n=147	표준편차	1.051	.984	1.069	.995	.974	1.085	1.009
사회	평균	2.49	3.02	2.91	3.07	3.29	2.94	3.02
n=334	표준편차	1.039	.991	1.099	.987	1.031	1.142	1.021
교육	평균	2.67	3.39	3.20	3.24	3.74	2.91	2.98
n=46	표준편차	.990	1.000	1.276	1.233	.905	.890	.977
공학	평균	2.50	3.12	3.07	3.07	3.32	3.04	3.03
n=319	표준편차	1.028	.995	.985	1.015	1.081	1.162	1.037
자연	평균	2.57	3.08	2.87	3.07	3.30	2.97	2.96
n=182	표준편차	1.063	.949	.946	.914	.982	1.027	1.002
의약	평균	2.73	3.41	3.02	2.98	3.61	2.59	2.84
n=49	표준편차	1.221	.998	1.051	.901	.909	1.039	.874
예체능	평균	2.50	3.20	3.12	3.08	3.51	3.00	2.94
n=534	표준편차	1.000	.917	1.044	.968	.942	1.089	.973



		자금 확보	기술 확보	인력 확보	행정 절차	업종 선정	사업장 위치선정	정보 수집
서울권	평균	2.48	3.09	3.00	3.15	3.49	2.96	2.89
n=312	표준편차	1.039	.948	1.089	1.008	.976	1.128	.966
경기권	평균	2.44	3.04	2.97	3.02	3.34	2.96	2.88
n=436	표준편차	1.003	.998	1.062	1.008	1.032	1.104	1.020
충청권	평균	2.57	3.19	3.00	3.04	3.49	2.99	3.02
n=253	표준편차	1.058	.956	1.043	.989	.911	1.076	1.004
경상권	평균	2.67	3.25	3.12	3.15	3.43	3.03	3.10
n=382	표준편차	1.055	.924	.983	.947	1.012	1.087	.983
전라권	평균	2.53	3.18	3.04	3.05	3.32	2.95	3.08
n=228	표준편차	1.000	.990	1.061	.956	1.035	1.123	.999
합계	평균	2.54	3.14	3.03	3.09	3.41	2.98	2.99
n=1,611	표준편차	1.033	.966	1.046	.984	1.000	1.102	.999

주) 5점 척도로 측정. 단, 매우 어려움이 '1'

〈표 7〉 창업시 도움 정도

(단위 : 점, 명)

		전공지식	직장(일자리) 경험	동아리, 동호회 활동경험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민간 창업 컨설팅	창업보육 과정
남자	평균	3.29	4.07	3.66	3.49	3.50	3.51
n=1,082	표준편차	1.600	1.968	2.175	2.526	2.653	2.647
여자	평균	3.78	4.23	3.80	3.75	3.80	3.78
n=529	표준편차	1.517	1.766	2.260	2.661	2.725	2.683
전문대	평균	3.34	4.02	3.81	3.63	3.66	3.60
n=406	표준편차	1.633	1.920	2.400	2.641	2.720	2.698
4년제	평균	3.49	4.16	3.67	3.56	3.58	3.60
n=1,205	표준편차	1.573	1.899	2.134	2.551	2.667	2.650
인문	평균	2.89	4.08	3.68	3.41	3.47	3.51
n=147	표준편차	1.509	1.939	2.251	2.611	2.693	2.731
사회	평균	3.18	4.07	3.50	3.54	3.45	3.52
n=334	표준편차	1.558	1.859	2.116	2.602	2.617	2.629
교육	평균	3.70	4.30	3.50	3.39	3.26	3.50
n=46	표준편차	1.443	1.672	1.823	2.637	2.662	2.563
공학	평균	3.08	3.94	3.70	3.36	3.48	3.34
n=319	표준편차	1.656	2.151	2.274	2.452	2.616	2.567
자연	평균	3.40	4.08	3.72	3.73	3.71	3.87
n=182	표준편차	1.526	1.898	2.103	2.463	2.642	2.641
의약	평균	3.73	4.31	3.37	3.43	3.33	3.16
n=49	표준편차	1.717	2.094	2.186	2.836	2.839	2.771
예체능	평균	3.98	4.26	3.90	3.75	3.82	3.78
n=534	표준편차	1.453	1.764	2.260	2.620	2.749	2.712
서울권	평균	3.68	4.32	3.71	3.55	3.59	3.63
n=312	표준편차	1.446	1.816	2.144	2.592	2.705	2.717
경기권	평균	3.47	4.00	3.76	3.56	3.57	3.57
n=436	표준편차	1.652	1.810	2.265	2.651	2.749	2.791
충청권	평균	3.38	4.43	3.79	3.71	3.83	3.75

		전공지식	직장(일자리) 경험	동아리, 동호회 활동경험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민간 창업 컨설팅	창업보육 과정
n=253	표준편차	1.692	2.173	2.357	2.619	2.743	2.696
경상권	평균	3.37	3.97	3.59	3.44	3.38	3.37
n=382	표준편차	1.545	1.889	2.148	2.444	2.535	2.440
전라권	평균	3.36	3.99	3.71	3.71	3.79	3.82
n=228	표준편차	1.593	1.861	2.090	2.565	2.669	2.637
합계	평균	3.45	4.12	3.71	3.57	3.60	3.60
n=1,611	표준편차	1.589	1.905	2.204	2.573	2.680	2.661

주) 5점 척도로 측정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 창업인턴 등 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관심정도, 참여, 취업 도움정도를 나타낸 것이 <표 8>이다. 대졸자 4명 중 1명 정도인 25.3%가 인지한 상태에서 2014년 대비 2015년 인지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 전공은 인문 계열, 성별로는 여성, 권역별로는 서울권, 일자리가 창업인 경우, 재학 중에 일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지 정도가 높았다. 관심정도는 5점 만점에 2.77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인지자 중 참여율은 2.8%, 대졸자 중 참여율은 0.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참여자들은 이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는 5점 만점에 3.16점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서울권 대졸자는 인지 정도는 높지만 관심도, 참여율, 취업 도움정도는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창업 일자리인 경우와 재학 중 일경험이 있는 경우에 모두 인지도, 관심도, 참여율, 취업도움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8> 창업관련 정책 인지 및 참여 비교

(단위 : 점, %)

변수	범주	인지율	관심정도	인지자 중 참여율	졸업자 중 참여율	취업 도움정도
연도	2014	27.2%	2.77	3.3%	0.91%	3.23
	2015	23.3%	2.73	2.3%	0.53%	3.05
학교유형	전문대	20.0%	2.82	4.0%	0.81%	3.23
	4년제	27.5%	2.74	2.6%	0.70%	3.13
	교육대	18.7%	2.56	1.3%	0.24%	3.50
전공계열	인문	29.8%	2.74	2.2%	0.65%	3.29
	사회	26.5%	2.80	2.3%	0.62%	3.26
	교육	21.2%	2.52	1.7%	0.36%	3.00
	공학	24.6%	2.75	3.7%	0.90%	3.28
	자연	25.8%	2.79	3.1%	0.80%	2.97
	의약	20.4%	2.55	0.4%	0.09%	3.50
	예체능	25.6%	2.86	3.9%	0.99%	2.95

변수	범주	인지율	관심정도	인지자 중 참여율	졸업자 중 참여율	취업 도움정도
성별	남자	24.3%	2.77	3.4%	0.83%	3.16
	여자	26.4%	2.73	2.3%	0.59%	3.16
권역	서울권	28.4%	2.71	2.1%	0.59%	2.79
	경기권	24.9%	2.76	3.7%	0.92%	3.27
	충청권	25.6%	2.73	2.7%	0.70%	3.11
	경상권	23.0%	2.77	3.0%	0.69%	3.26
	전라권	25.0%	2.80	2.5%	0.63%	3.31
현재일자리보유여부	미보유	26.6%	2.70	2.9%	0.76%	2.87
	보유	24.8%	2.77	2.8%	0.70%	3.28
현재일자리창업여부	비해당	25.2%	2.74	2.7%	0.68%	3.10
	해당	28.3%	2.96	7.5%	2.11%	3.89
재학중일경험	무경험	22.1%	2.74	2.5%	0.56%	3.23
	유경험	27.4%	2.76	3.0%	0.83%	3.13
전체	전체	25.3%	2.75	2.8%	0.72%	3.16

자료: 2014-2015GOMS

## IV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대학 졸업 전후에 창업을 준비한 이들이 졸업 이후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일자리가 창업인 대졸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창업을 하게 된 이유, 창업에 소요된 비용, 창업 만족도를 분석하고 각각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각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과 분석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활용가능한 수준에서 적합 모형을 찾아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1. 창업 여부

연구하고자 하는 모형은 어떤 대졸자가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에 창업을 결정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창업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활용한 GOMS 자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개년 자료가 있지만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 창업인턴 등 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는 2015년에 실시한 2014GOMS부터 설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2014GOMS와 2015GOMS에 응답한 총 32,843명이다. 연도 변수는 2014년 '0'과 2015년 '1', 성별은 여성 '0'과 남성 '1',

학교 유형은 전문대 외 '0'과 전문대 '1', 서울 여부는 서울지역 외 대학교 출신 '0'과 서울지역 대학교 출신 '1'로 설정하였다. 전공별로는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창업자가 많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을 별도로 더미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대학 재학 중에 등록금 등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학금, 학자금 대출, 본인 스스로 등록금 마련 등이 최소 50% 이상 투입된 경우를 '스스로 학비 마련'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재학 중에 일 경험이 없는 경우 '0'과 일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하여 '재학중 일경험 여부' 변수를 만들었으며,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 이상으로 이진(binary) 분류하여 고졸 이하인 경우 '0', 전문대 이상인 경우 '1'로 설정하였다. 가구 소득은 입학당시와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각각 400만원 미만인 경우 '0', 400만원 이상인 경우 '1'로 설정하다. 동일 전공을 재선택할 의지가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로 하였고,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 '0', 한 경우 '1'로 하였으며, 대학 재학 중에 졸업 유예 경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정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0', 인지하고 있으면 '1'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로짓모형 투입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단위 : 명, %)

연도	2014	17,169	52.0	부의학력	아니오	18,141	54.9
	2015	15,877	48.0	전문대이상여부	예	14,905	45.1
성별	여자	15,429	46.7	모의학력	아니오	28,084	85.0
	남자	17,617	53.3	전문대이상여부	예	4,962	15.0
학교유형	기타	24,372	73.8	입학당시가구소득	아니오	16,925	51.2
	전문대	8,674	26.2	월400이상여부	예	16,121	48.8
서울여부	기타	26,247	79.4	현재가구소득	아니오	17,673	53.5
	서울	6,799	20.6	월400이상여부	예	15,373	46.5
공학여부	아니오	23,587	71.4	동일 전공 선택여부	예	18,657	56.5
	예	9,459	28.6		아니오	14,389	43.5
자연여부	아니오	28,280	85.6	복수/부/연계전공	예	4,289	13.0
	예	4,766	14.4	여부	아니오	28,757	87.0
스스로 학비 마련	아니오	17,083	51.7	졸업유예 경험 유무	있다	3,636	11.0
	예	15,963	48.3		없다	29,410	89.0
재학중 일경험 유무	아니오	13,334	40.3	창업정책 인지여부	아니오	24,594	74.4
	예	19,712	59.7		예	8,452	25.6

자료: 2014-2015GOMS

창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0>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에 비해 창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창업자의 수는 4년제가 많고 창업 비율은 두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

과, 전문대가 4년제에 비해 창업할 가능성이 28.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 역시 <표 3>에서는 창업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전공에 비해 창업 가능성이 매우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 통신 등 창업 업종이 많은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이 창업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취업으로만 주로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은 높을수록 창업 가능성이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 만 35세 미만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부의학과 모의학력은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재학중에 졸업 유예 경험이 있는 경우에 창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유예하는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창업 관련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정책 인지 자체가 창업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창업 가능성이 있어서 창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인지는 종단자료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표 10> 로짓모형 분석 결과: 창업 여부

	B	S.E.	Wals	자유도	Exp(B)
year(2015)	.050	.079	.400	1	1.052
gender(남성)	-.075	.082	.839	1	.927
schooltype(전문대)	.253**	.091	7.702	1	1.288
seoul(서울)	.065	.085	.585	1	1.067
engineer(공학)	-.771***	.097	62.707	1	.463
natural(자연)	-.109	.100	1.197	1	.897
age(연령)	.231***	.016	211.947	1	1.260
tuition_self(스스로)	-.048	.071	.463	1	.953
onwork2(예)	-.051	.072	.503	1	.950
부의학력(전문대이상)	.081	.080	1.035	1	1.084
모의학력(전문대이상)	.111	.113	.969	1	1.118
입학당시 가구소득 월4000이상 여부	.063	.113	.311	1	1.065
현재 가구소득 월4000이상 여부	.098	.113	.758	1	1.103
remajor(전공재선택)	.102	.071	2.089	1	1.108
dual(복수전공)	-.063	.104	.374	1	.939
stay(졸업유예)	-.326**	.116	7.857	1	.722
창업정책(인지)	.137†	.077	3.156	1	1.147
상수항	-9.684***	.431	503.901	1	.000
$n$	33,046				
$\chi^2$	300.076***				
Nagelkerke's $r^2$	.042				
classification accuracy	97.400				

\*\*\*:  $pr < 0.001$ , \*\*:  $pr < 0.01$ , \*:  $pr < 0.05$ , †:  $pr < 0.1$

## 2. 창업 비용

35세 미만 대졸자가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에 창업을 결정한 경우, 그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소요된 비용이 얼마이며, 비용 마련에 있어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창업 비용을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을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는 <표 11>과 같다.

먼저 연도 변수는 2010년을 기준 변수로 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각각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성별은 여성 '0', 남성 '1', 학교 유형은 전문대 외 '0', 전문대 '1', 서울 여부는 서울지역 외 대학교 출신 '0', 서울지역 대학교 출신 '1'로 설정하였다. 전공별로는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창업자가 많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을 별도로 더미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대학 재학 중에 등록금 등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학금, 학자금 대출, 본인 스스로 등록금 마련 등이 최소 50% 이상 투입된 경우를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재학 중에 일 경험인 없는 경우 '0', 일 경험이 있는 경우 '1',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 이상으로 이진 분류하여 고졸 이하인 경우 '0', 전문대 이상인 경우 '1'로 설정하였다. 입학당시 가구 소득은 400만원 미만인 경우 '0', 400만원 이상인 경우 '1'로 설정하였다. 창업 형태는 혼자 창업한 경우를 기준변수로 하여 공동창업과 기타창업을 각각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창업시 자금 확보 어려움은 역코딩한 값을 연속형으로 사용하였다.

<표 11> 위계적 회귀모형 투입변수 및 기초통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창업 비용	5708.62	11282.173	자연여부	.11	.316
year2011	.19	.396	연령	27.53	2.634
year2012	.14	.351	스스로 학비 마련	.37	.482
year2013	.17	.380	재학중 일경험 유무	.58	.493
year2014	.14	.351	부의학력 전문대이상여부	.41	.491
year2015	.17	.375	모의학력 전문대이상여부	.20	.400
성별	.68	.468	입학당시가구소득 월400이상여부	.47	.499
학교유형	.25	.435	공동창업여부	.19	.396
서울여부	.20	.398	기타창업여부	.08	.266
공학여부	.20	.398	창업시 자금확보 어려움	3.48	1.029

〈표 12〉 회귀모형 분석 결과: 창업 비용

	Model 1			Model 2		
	B	se	$\beta$	B	se	$\beta$
(상수)	-8629.46*	3451.092		-11809.857**	3583.560	
졸업년도(기준:2010)						
2011	764.955	980.112	.027	842.695	978.119	.030
2012	517.793	1072.758	.016	604.180	1071.737	.019
2013	-844.957	1034.560	-.028	-793.092	1032.675	-.027
2014	-1479.829	1077.377	-.046	-1579.451	1076.761	-.049
2015	-805.291	1062.446	-.027	-828.371	1061.222	-.028
성별(남성)	1957.962**	695.758	.081	1715.560*	702.508	.071
학교유형(전문대)	607.068	714.539	.023	624.832	712.870	.024
서울여부(서울)	-2674.856***	747.443	-.094	-2810.679***	748.807	-.099
공학여부	1012.030	759.643	.036	1019.664	758.023	.036
자연여부	163.071	932.879	.005	221.751	930.896	.006
연령	455.651***	122.458	.106	465.519***	122.387	.109
스스로 학비 마련	-458.915	648.730	-.020	-578.920	648.513	-.025
재학중 일경험 유무	-1412.956*	599.837	-.062	-1527.627*	600.390	-.067
부의학력 전문대이상 여부	994.128	688.505	.043	1046.960	687.248	.046
모의학력 전문대이상 여부	1815.519*	855.854	.064	1777.189*	854.286	.063
입학당시 가구소득 월400이상 여부	2374.605***	606.101	.105	2466.954***	605.516	.109
창업형태(혼자)						
공동창업여부				405.221	741.956	.014
기타창업여부				725.214	1087.395	.017
창업시 자금확보 어려움				859.490**	281.956	.078
<i>n</i>	1,477			1,477		
<i>F</i>	5.999***			5.615***		
adjusted $r^2$	0.051			0.056		

\*\*\*:  $pr < 0.001$ , \*\*:  $pr < 0.01$ , \*:  $pr < 0.05$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이다. 모형2를 기준으로 창업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들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창업비용에 대한 투자 금액이 높았다. 서울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창업 비용에 대한 투자가 유의하게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비용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한편 재학 중 일경험이 창업비용 투자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재학 중에 일을 통한 비용감소 또는 지출에 대한 노하우 축적 등을 통해 창업 비용을 낮추는 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창업에 대한 로짓모형에서는 부의학력과 모의학력이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에 창업 비용에서는 모의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모의학력이 전문대 이상일수록 창업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학 당시 가구 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월 소득이 400이상인 경우에 창업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시 자금확보가 어려울수록 창업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일자리 만족도

35세 미만 대졸자가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에 창업을 결정한 경우, 그들이 창업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현재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 졸업자까지 공통적으로 질문한 10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갖는 ‘현재 일자리 만족도 평균’이 종속 변수이다. 이 모형을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는 <표 13>과 같은데, 투입된 변수는 앞의 창업비용과 같은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표 13> 회귀모형 투입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일자리만족도 평균	3.46	.590	자연여부	.11	.317
year2011	.19	.391	연령	27.49	2.636
year2012	.14	.350	스스로 학비 마련	.37	.482
year2013	.17	.376	재학중 일경험 유무	.59	.493
year2014	.17	.373	부의학력 전문대이상여부	.41	.492
year2015	.16	.371	모의학력 전문대이상여부	.21	.406
성별	.67	.470	입학당시가구소득 월400이상여부	.47	.499
학교유형	.25	.435	공동창업여부	.19	.396
서울여부	.20	.396	기타창업여부	.08	.267
공학여부	.19	.395	창업시 자금확보 어려움	3.47	1.033

<표 14> 회귀모형 분석 결과: 창업 일자리 만족도

	Model 1			Model 2		
	B	se	$\beta$	B	se	$\beta$
(상수)	3.797***	.181		3.949***	.188	
졸업년도(기준:2010)						
2011	-.133*	.052	-.088	-.135*	.052	-.090
2012	-.093	.057	-.055	-.094†	.057	-.056
2013	-.014	.055	-.009	-.016	.055	-.010
2014	-.063	.054	-.040	-.056	.054	-.035
2015	-.010	.056	-.006	-.008	.056	-.005
성별(남성)	-.022	.036	-.017	-.013	.037	-.011
학교유형(전문대)	-.051	.037	-.037	-.052	.037	-.038
서울여부(서울)	-.015	.039	-.010	-.012	.039	-.008
공학여부	.022	.040	.015	.021	.040	.014
자연여부	-.032	.048	-.017	-.034	.048	-.018
연령	-.010	.006	-.046	-.011	.006	-.047
스스로 학비 마련	.060†	.034	.049	.066†	.034	.054
재학중 일경험 유무	-.058†	.031	-.048	-.055†	.031	-.046
부의학력 전문대이상 여부	.039	.036	.032	.036	.036	.030



	Model 1			Model 2		
	B	se	$\beta$	B	se	$\beta$
모의학력 전문대이상 여부	.062	.044	.043	.061	.044	.042
입학당시 가구소득 월400이상 여부	.021	.031	.017	.016	.031	.014
창업형태(혼자)						
공동창업여부				.021	.039	.014
기타창업여부				-.015	.057	-.007
창업 시 자금 확보 어려움				-.045**	.015	-.079
<i>n</i>	1,547			1,547		
<i>F</i>	1.898*			2.121**		
<i>r</i> <sup>2</sup>	0.019			.026		

\*\*\*:  $pr < 0.001$ , \*\*:  $pr < 0.01$ , \*:  $pr < 0.05$ , †:  $pr < 0.1$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이다. 모형2를 기준으로 현재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들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이 2010년에 비해 유의하게 만족도가 낮아졌다. 연도는 전반적으로 계수의 부호가 (-)를 보이고 있어 2010년 대비 만족도 하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재학 당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한 창업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재학 중 일경험이 있을수록 일자리 만족도는 오히려 낮았다. 창업 시 자금 확보가 어려울수록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중 청년 창업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기초분석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 비율은 졸업 인원 대비 3~4% 내외, 취업 인원 대비 4~5% 내외 수준으로 최근 들어 약간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업자의 인구통계 특성별로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경상권 대학을 졸업한 창업자가 인원이 가장 많지만 전라권 대졸자의 창업 비중이 4.9%로 가장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를 졸업하고 창업한 대졸자가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거의 천 명 정도 많지만 창업자 비중은 전문대가 4.2%로 4년제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이 가장 많았고, 전공 대비 창업 비중도 8.4%로 다른 계열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창업자에서 남성 비중이 과반으로 나타났고 졸업자 대비 창업 비중 역시 3.7%로 여성의 3.1% 보다 높았다.

가장 많은 창업 형태는 혼자 창업한 것으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창업을 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낀 것은 자금 확보였고, 반면에 창업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일자리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 관련 정책 인지, 관심 정도, 참여, 취업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대

졸자 4명 중 1명 정도가 정책을 인지하고 있고, 2014년 대비 2015년 인지율이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 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는 보통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인지자 중 참여율은 2.8%, 대졸자 중 참여율은 0.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를 3.16점의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창업을 하게 된 이유, 창업에 소요된 비용,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짓 분석한 결과, 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에 비해 창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은 다른 전공에 비해 창업 가능성이 매우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은 높을수록 창업 가능성이 높았고, 부모의 학력은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유예에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졸업 유예 경험은 창업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업 관련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창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창업정책 인지 자체가 창업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인지, 창업 가능성이 있어서 창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인지는 종단자료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창업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창업비용에 대한 투자금액이 높았고,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창업비용에 대한 투자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비용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한편 재학 중 일경험이 창업비용 투자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재학 중에 일 경험을 통한 비용감소 또는 지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모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일수록 대학 입학 당시 가구 소득이 월 소득이 높을수록 경우에 창업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 재학 당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한 자수성가형 창업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재학 중 일경험이 있을수록 창업 시 자금 확보가 어려울수록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층이 창업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자금 확보 문제를 꼽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지원금 줌비를 양성하지 않도록 창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기존에 정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같은 지원금 수혜의 폭과 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인의 다리를 늘리거나 난장이의 팔 다리를 늘리는 방식의 일률적인 지원금 책정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성과와 사업화 단계에 따라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일자리 경험이고, 이러한 일자리 경험은 창업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일의 세계와 학교를 연결

해주는 통로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창업 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학점 인정의 확대와 창업을 위한 휴학 제도 마련 등 대학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창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실제 창업 여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창업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에만 전적으로 기인한 바는 아닐 것이다. 청년 창업자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앞서서 초, 중등 교육 단계에서 체험 중심의 창업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공계 전공자일수록 창업을 기피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년 창업의 대세가 혁신적 기술에 기초한 창업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과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필요조건이다. 창업가의 위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창업 활성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창업 성과를 전제로 해서 주거(住居) 지원이나 병역 특례 제도, 이달의 청년 창업인 선정과 같은 사회 문화적 보상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술계열 전공자의 창업자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 교습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예술과 인문이 결합된 창의적 형태의 창업 증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기존의 혁신 기술 창업 지원 과정에서 예술성이 배가될 수 있도록 융합 형태의 창업을 권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재학 중 일경험이 있거나, 창업 시 자금 확보가 어려울수록 창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창업의 경우 초기에 열악한 사업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개론 수준의 집체교육보다는 사업체 특성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맞춤형 멘토링과 경영 컨설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장기적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자료의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종단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패널 조사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의 주요한 성과로 볼 수 있는 큰 기업으로의 인수합병을 통한 탈출(exit)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설문 내용의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8).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관계 부처.
- 노규성, 강현직 (2012).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9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박재환, 박명수, 김대엽 (2012).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32-144.
- 신종각, 이주현 (2017).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이원준 (2016). 대학생의 창업 실행성과 창업 의지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978-982.
- 이재훈 (2014). 국내 청년층의 창업인식 실태와 증대방안. 벤처창업연구, 9(6), 1-8.
- 정대용, 채연희 (2015).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 셀프리더십, 창업효능감 간의 관계모형.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378-2404.
- 통계청 (2017). 2016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 통계청 (2018). 2018년 3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 Bollinger, L., Hope, K., and Utterback, J. M.(1983).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12(1), 1-14.
- Bowen, D. D., and Hisrich, R. D.(1986). The female entrepreneur: A career development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2), 393-407.
- Min, H. O. and Kim, D. J.(2013).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Social Status, Networking Environment, and Demographics on Start up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8(4), 1-17.